

“살아야 한다!! 탈출구, 비상구를 찾아서...” 전체 일정입니다.

월 (28일)	화 (29일)	수 (30일)	목 (1일)
IMF 전막 (10시-5시) 민주광장			
야외영화제 “공포&Sexuality” Shining - 스탠리 큐브릭 Serial Mom - 존 위터스 장소 : 백주년 앞 시간 : 늦은 7시부터	취업간담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 취업괴담” 장소 : 논지당 시간 : 늦은 6시	제3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구를 위한 결의대회 장소 : 국민회의 당사 앞 시간 : 늦은 3시 야외영화제 “공포와 Sexuality” Scream I - 웨스 크레이븐 천상의 피조물들 - 피터잭슨 장소 : 백주년 앞 시간 : 늦은 7시부터	강연회 “여성신규직업의 현황과 대응책” 강연자 : 한국여성민우회 장소 : 상대별관 B103호 시간 : 늦은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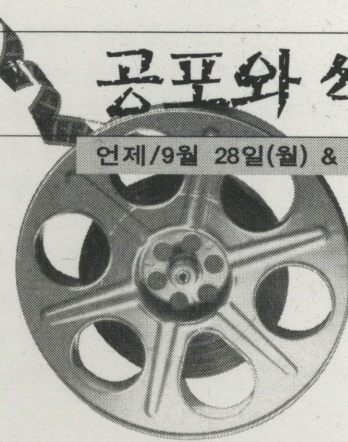
살아야 한다!! 탈출구, 비상구를 찾아서...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에서 억압된 여성의 달랠길 없는 원혼은 여러 가지 한을 품은 귀신들로,
 혹은 현실에서 갖지 못한 권력보다 더 초월적이고 강력한 힘을 얻은 둔갑한 여우들로 형태를 바꿔
 기존 질서나 가부장제 도처에 출몰하며 이를 교란시켜 왔다.
 억압된 것 자체이면서 동시에 가장 활발한 복수극의 활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섹슈얼리티다.....

현실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없다...

공포와 섹슈얼리티 야외 영화제

언제/9월 28일(월) & 9월 30일(수) 늦은 7시부터 어디서/백주년 기념관 앞



주최 :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10대 중여학생회

9월 28일(월) 백주년 기념관 앞, 늦은 7시부터 연속 상영

[샤이닝 Shining] 스탠리 큐브릭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걸작.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소시민이 한편으로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청운의 꿈을 부풀리며,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생계의 해결(아버지가 변변찮은 작가 지망생이다)을 위해 유령이 깃든 호텔의 관리인으로 묵게 되는 일주일 간의 기록.

영화는 공포영화의 가장 상식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답게 여성과 아동의 억압과 학살에 기초한 미국 중산층 가족질서와 그런 가족주의에 근간한 아메리칸 드림(영화에서는 유령호텔로 설정된)의 허구적인 신화와 맹목적인 광기를 공격하고 해체한다. 모든 탈출 가능한 수단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순간들의 불안감. 한마디로 미국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타 들어가는 순간과 같은 긴장감의 창출과 압축적인 극의 전개를 통해 보여주는 영화.

[씨리얼 맘 Serial Mom] John Waters 감독, 1994, 90분

공포영화는 무서워서 못보겠다는 분들을 위한 영화. 아무런 문제없는 평화롭고 화목한 한 중산층 가정의 딸 그대로 멀쩡한 아줌마가 연쇄살인을 저지른다. 주부에게 부과된 의무들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온갖 수다스런 헤프닝과 급기야는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마는 중산층 주부의 도덕관의 혼란. 또한 이러한 행위에 열광하는 언론과 대중들. 아이러니한 이 현실에 대해 매우 코믹하게 그리고 있는 코믹한타지 호러무비.

선댄스 영화제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미국 인디 영화계의 거장인 존 워터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은 80년대 미국 슬래셔 장르(레이전 시대의 보수주의를 비꼬며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보수주의에 물들어 가던 공포영화의 가장 전형적인 변화와 불안을 대변해주던 보수적인 남성 싸이코에 의한 여성들에 대한 이유없는 연쇄 살인을 다루는 영화 장르)를 황당하고, 엉뚱하게 뒤집어 버린다.

주목할 것은 남성 싸이코들에 의한 연쇄살인은 그토록 끔찍하고, 무섭고, 엄격한 반면, 여성(더군다나 '엄마')에 의한 연쇄살인은 그렇게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며 축제적이라는 사실이다. 주부가 될 여성관객이라면 앞으로 가족주의 가부장제 속에서 한 가족의 엄마가 되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실히 겪게 될 것이다.

9월 30일(수) 백주년기념관 앞, 늦은 7시부터 연속 상영

[Scream 1] 웨스 크레이븐 감독, 1996.

영문학교수로 지내다가 할리웃 B급 공포영화로 자신의 영화인생을 출발한 웨스 크레이븐(우리에게는 '나이트메어1'과 '사랑과 영혼'이 잘 알려져 있다)이 공포영화장르 자체를 공포영화로 패러디하기 시작한 영화. 영화의 시작부터 공포영화에 대한 퀴즈들로 관객들과 끊임없이 향연과도 같은 게임을 펼친다. "13일의 금요일밤에서 살인자는 누구인가?... 살인자인 나는 지금 당신의 집 앞문에 와 있나? 뒷문에 와 있나?..." 이 공포영화로 가득 메워진 퍼즐같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관객들은 영화가 건네는 질문에 끊임없이 답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공포영화를 본다는 것의 한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소리지르다가 숨쉴 겨를도 없이 진짜 살인자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살인자(죽음)는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바로 옆에 있으며, 공포영화를 많이 보아온 당신이 뻔히 짐작하는 그 누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모두가 용의자이며, 이 영화는 현실일 수도 환상일 수도 있다. 공포영화를 보는 당신은 영화의 밖이 아닌 안(그것도 한가운데)에 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그렇게 난해하고, 지적인 영화가 아닌가하고 지레 겁먹지 말기를...

[천상의 피조물들] 피터 잭슨 감독

국내에서 출시된 [데드 얼라이브]로 잘 알려진 피터 잭슨의 역작.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공포영화거장에 의해 만들어진 공포영화의 경계를 허무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전후 보수적인 영국 가부장제 이성애 질서 속에서, 숙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는 두 여성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다. 영특하고 재기발랄한 두 여성간의 사랑과 유토피아는 현실의 온갖 장애에 부딪히고, 천상의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유토피아에 가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존재를 지탱하게 해준 모든 꿈과 열망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선택했고, 그것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현실(실화)이었기에 더욱 불안하고, 두렵고,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감동적인 드라마. 만일 당신이 [데드 얼라이브]에서의 난도질의 극한까지 간 피터 잭슨을 기억한다면, 그 카니발적인 악몽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다 떨쳐버리고, 가슴의 모든 부분을 열고 이 영화를 봐야 할 것이다.

이 통렬한 복수와 추제의 한 마당에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모든 사람들을 부디 신랄대시에 팔뚝을 싸들고 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시길...